다시 한번 대고조

화살

선동원사 10호
1963

—미스터 박! 우린 더 올라 갈게 없십네까 ?? 앙 !!
—올라가는 것은 반미 기세 뿐입니다.

조 명식 그림

행복의 박을 탄다

경공업

중공업

전 의남 그림

채찍을 번쩍 쳐들고

피 호 주

—여보, 령감 무얼 그리 신나게 읽고 있소?

—《전과 보고서》를…

—아니, 《전과 보고서》라니요?

영호 할머니는 자못 놀라는 기색이다.

—영호한테서 편지가 왔소, 달리는 천리마에 박차를 가하여 새로운 《전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지 않겠소.

—난 또 무슨 전툰가 하고, 호호…

—자, 편지를 좀 들어 보우다. (읽는다)

"…당 중앙 위원회가 보낸 붉은 편지를 받들고 아버지께서는 요새 작업 공정을 자동화하여 많은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여 공장에서 칭찬이 자자하답니다.

어머니는 종전보다 기대를 여러대 더 맡아 보면서 1 등품의 고급천을 짜 내고 있구요, 저는 우리 생활 필수품 직장에서 길 확실 로력 영웅과 같은 혁신자가 되기 위하여 있는 정열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자, 어떻소, 영호네두 말 고삐를 든든히 틀어 쥔 천리마 기수들의 대렬에서 채찍을 번쩍 쳐들고 내달리고 있단 말이요.

—온 가족이 새 전투에로 부른 당의 호소를 받들고 천리마 기수답게 높이 뛰고 있다니 참 반가운 소식이군요… 근데 령감은 오늘 책임량이나 했소?

—나야 언제나 미달이지…

—뭐요? 늘 한 자루 반씩은 맡아 놓고 하더니 미달이라구요?

—오늘의 책임량은 초과 완수하고 래일 할 일까지 했는데, 그것을 미달했다 그 말씀이웨다. 앗하하…

—호호, 그러면 그렇겠지.

영호 할머니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였다.

—우리 비록 몸은 늙었지만 붉은 마음이야 어찌 늙을 수 있소. 우리도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7 차 전원 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한 계단 더 높이 뜁시다.

우리 작업반에서는 3 정보의 밭을 논으로 푸는 일을 벌써 시작했수다. 거기서 나도 젊은이들 못지 않게 일하고 있으니까!

—나도 돼지, 닭, 토끼를 더 많이 길러서 호당 150 키로그람 이상의 육류를 생산하라는 당의 호소를 300 %로 초과 완수할 작정이웨다.

—암, 그래야 하구 말구.

영호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입술은 한 일'자로 꼭 다물어졌고 그의 눈에는 불'빛이 이글거렸다.

천 무 삼

경찰. 이자 무슨 말을 했어?

녀인. 지상 락원에서 살아 본 꿈 이야기를 했어요.

경찰. 꿈 이야기? 거짓말 말어, 북한에 대한 선전을 했지?!

녀인. 선전이라니요? 전기 세탁기, 전기 가마, 전기 다리미, 선풍기, 재봉기에 록음기, 전축, 사진기, 시계랑 옷장, 찬장, 각종 수지 제품 할 것 없이 집에 갖출건 다 갖추어 놓고 잘 살아 본 꿈 얘길 했는데 북한 선전이라니요?

경찰. 그게 북한 선전이 아니고 뭐야! 조선 사람치고 그렇게 된 곳은 북한 땅 밖에 없단말야, 파출소로 가자!

녀인. 그럽시다. 그렇지만 당신도 경칠걸…

경찰. 왜 내가 경쳐?

녀인. 나는 북한이 그렇게 사람 살기 좋은 지상 락원인줄은 몰랐었는데 당신이 나에게 대주었으니 북한 선전자는 내가 아니라 당신이죠!

경찰. 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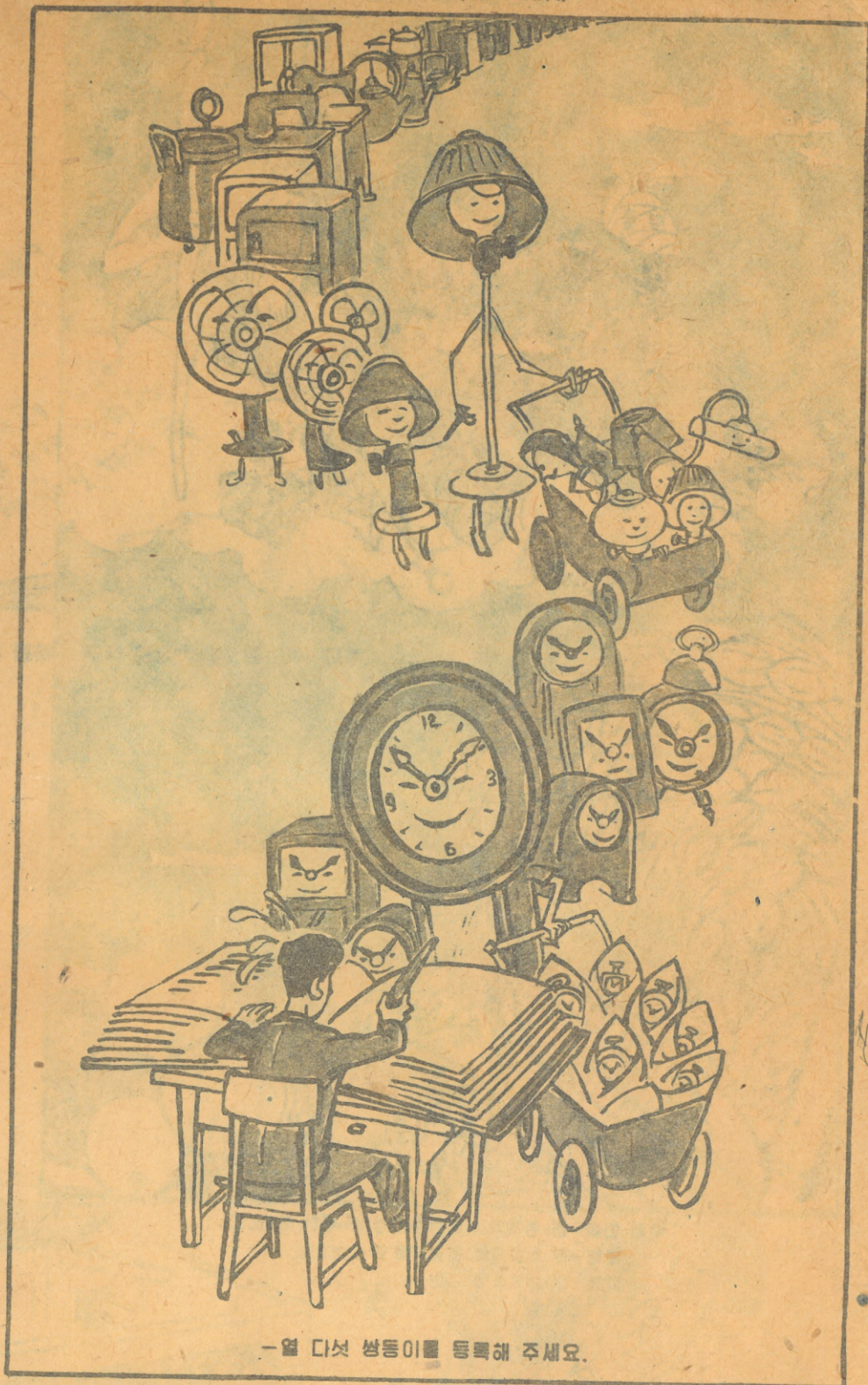
품종 《등록소》에서

—열 다섯 쌍둥이를 등록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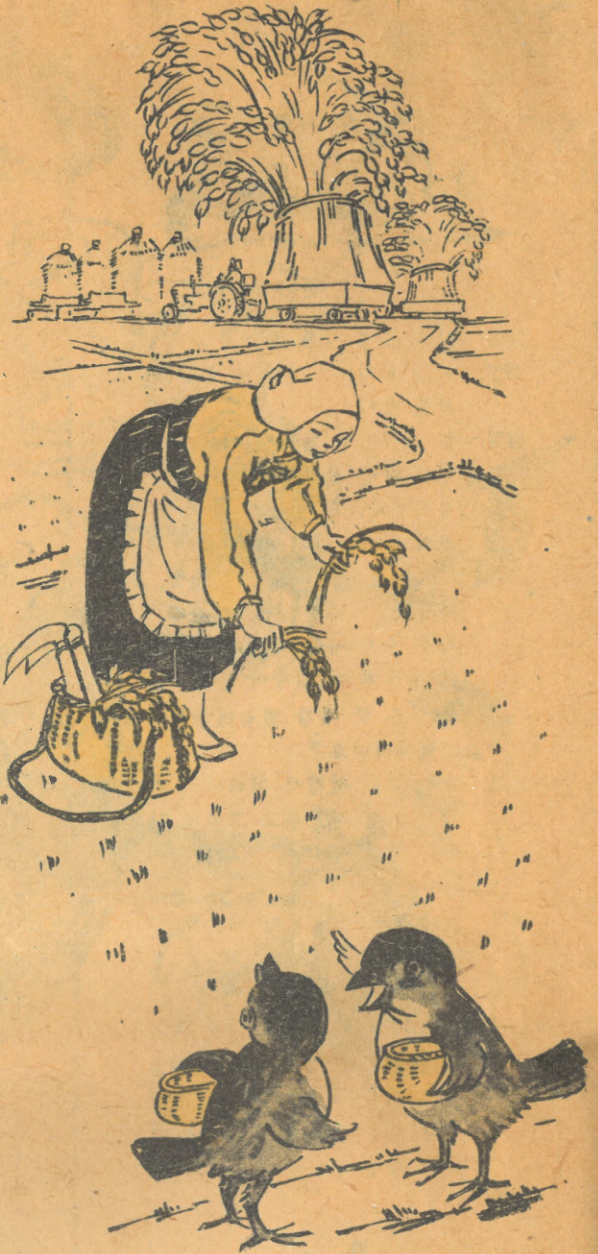
박 승희 그림

박 령감의 공장 구경

송 시엽 그림

《패잔병》의 비명

수재, 한재—전 관개망과 대전하다가 이 꼴이 됐습니다.
병충—전 살충제에 치명상을 입었습지요.
잡초—전 살초제에 그만…

안 창수 그림

한알도 허실없이

참새—몇 알만 동정해 달라고 말해 볼까?

1,500마리의 병아리를 안는 《암탉》

정 찬

함남 신풍 협동 농장 마을에 들어 선 용수는 어깨가 절로 으쓱거렸다

축산반과 농산 작업반 그리고 집집마다에서 《꼭교, 꿀꿀, 삐욕삐욕, 멤헤, 갈갈, 갸악갸악, 엄매》 하는 소리는 마치 대합창을 하는 것 같았다.

《거, 참 대단하군!》

용수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이런말이 튀여 나왔다.

《예—, 호당 평균 돼지 2 마리, 닭, 오리, 게사니 50 마리, 토끼 15 마리를 기르고 있으니까요. 더우기 병아리만 해도 1만 여 마리나 된답니다》

옆에 섰던 축산 기사의 말이다.

《뭐요?!, 병아리를 굉장히 깠군요!》

《우리 농장에는 병아리를 한꺼번에 1,500 마리씩 까는 "암탉" 이 3 마리나 있는데요 뭐》

《예?!》 용수는 눈이 휘둥글해졌다.

《예—, 우리 병아리 관리공들이 힘들여 만든 부화기지요! 우리는 이런 "암탉"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 6월까지만 해도 4만 여 마리의 병아리를 까서 농장과 작업반 그리고 집집마다 나눠주었고 이 "암탉" 이 지난해 깐 병아리들이 올해는 5만 여 개의 계란을 낳았답니다》

《그러고 보니 부화기가 아니라 보물기로군요, 아 하하》

용수는 고기와 알을 많이 생산한 이 협동 농장의 좋은 경험들을 축산 기사 정인 동무에게서 상세히 들었다.

명년도 《계약》

벼왕—1~2 년 내에 모두가 이밥을 먹도록 해야 하겠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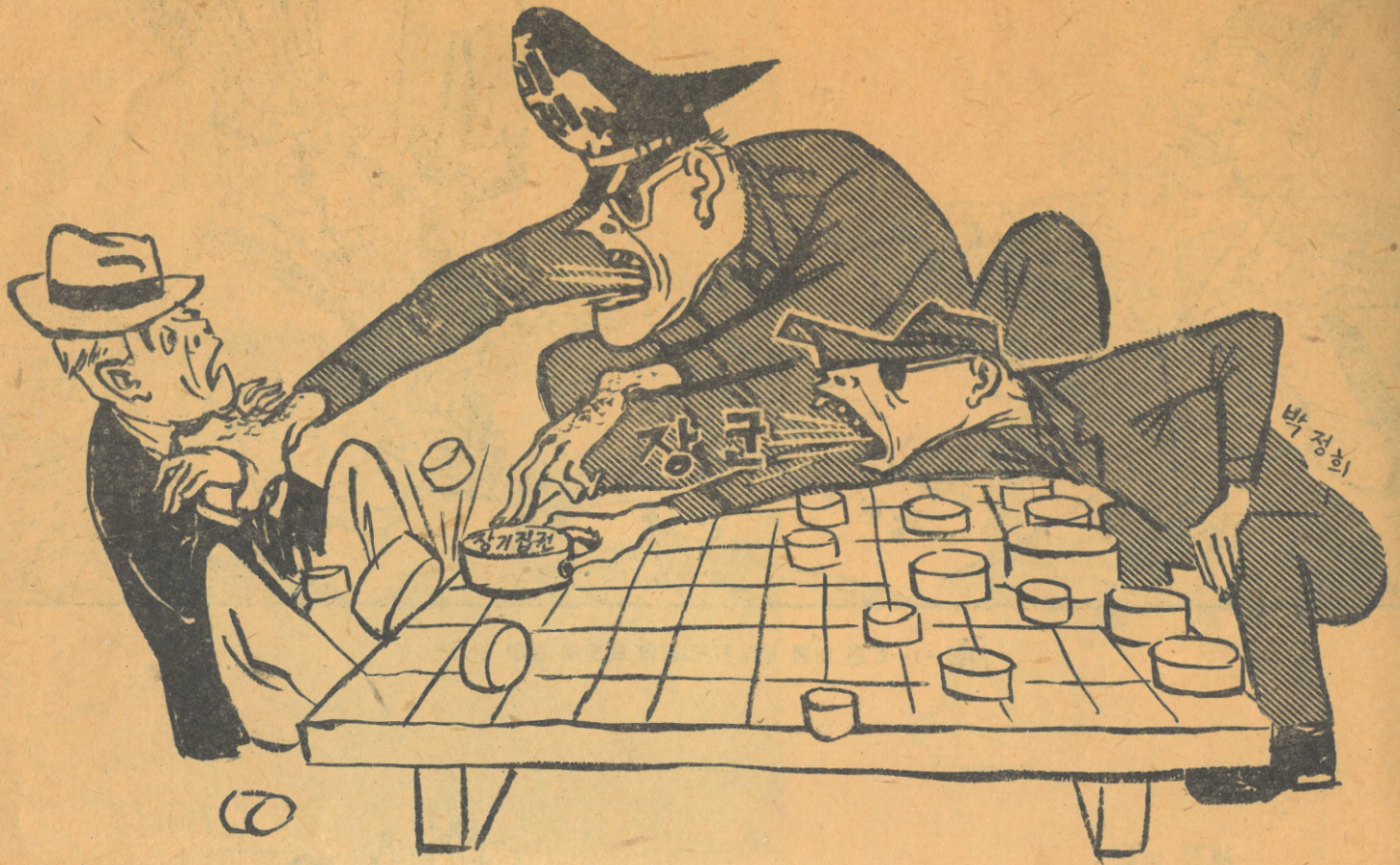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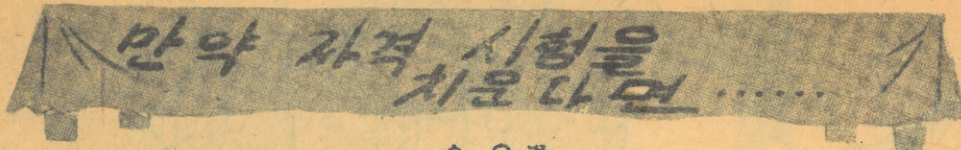
세간 난다

—저걸 좀 봐요.
축산반에서 새끼 가축을 많이 쳐서
작업반과 농가들에 세간 내는군요.

안 창수 그림

미제—승패는 결정됐다.

박 승희 그림

만약 자격 시험을 치운다면……

오 은별

심사원. 당신은 누구죠?

응시자. 예, 금번 민정 이양과 관련하여 국회 의원으로 출마하려는 군사 정권의 최고 위원이올시다.

심사원. 그럼 우선 인물 심사부터 합시다. 에— 당신의 성격과 품행 상 장점이 무엇인지 말해 보시오.

응시자. 예, 저의 장점은 나라와 겨레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롭고, 친구에게 신의를 지키며, 혁명 공약을 준수하고, 자립 경제를 건설하며, 민생고를 해결하고…

심사원. 아하! 그러니까 장점이란 장점은 다 갖고 있구만요.

응시자. 예 그렇습니다.

심사원. 그렇다면 당신의 결점은 무엇이죠?

응시자. 예, 저의 결점이라면 다만 하나…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겁죠!

심사원. 자, 그럼, 당신의 정치적 리념은 무엇이죠?

응시자. 예, 나의 정치적 리념은 자유 민주주의입죠.

심사원. 당신의 그와 같은 리념은 어디에 나타나고 있소?

응시자. 이미 개정된 헌법에 충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사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례를 들어 말해 보시오.

응시자. 예, 바로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사원. 가만… 그런데 그 매개 자유엔 《그러나》가 붙어 있지 않소?

응시자. 《그러나》가 붙어 있다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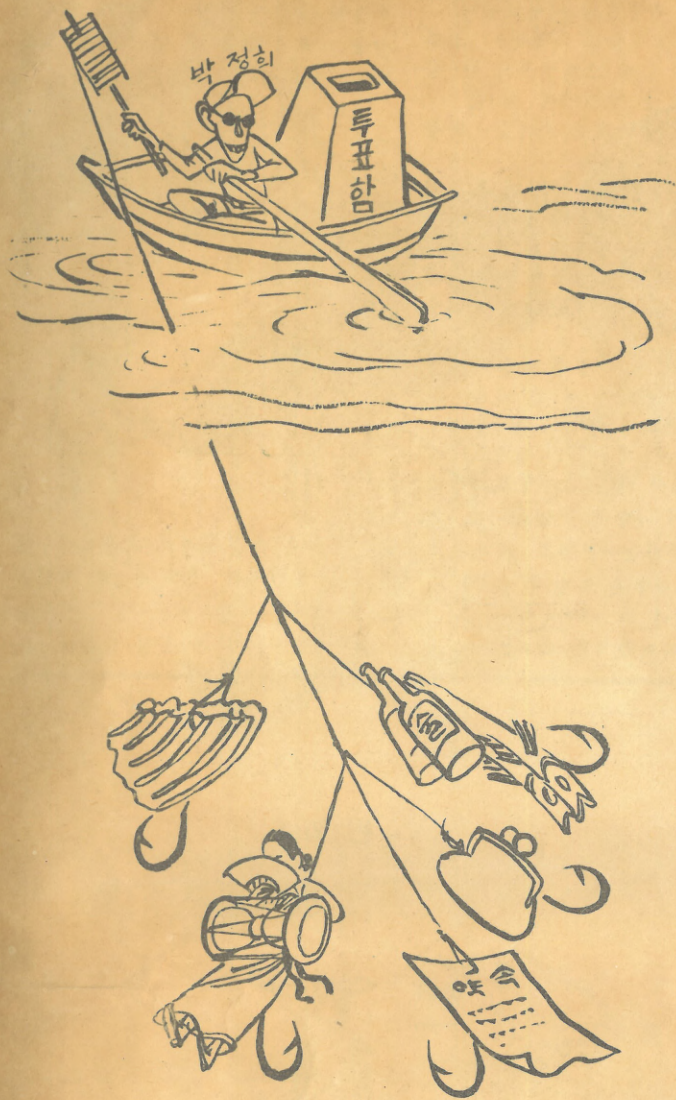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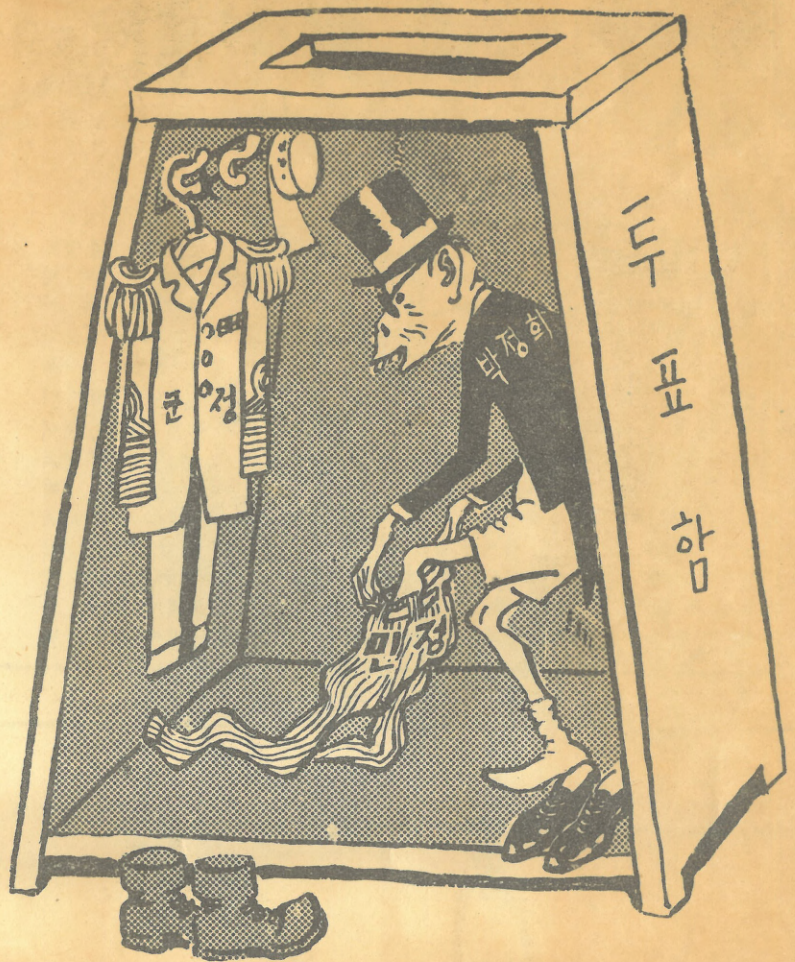
심사원. 언론 출판은 자유다. 그러나 신문이나 통신의 발행 시설 기준을 지켜야 하며 영화나 연예도 단속을 한다. 집회는 자유다. 그러나 시간과 장소에 대한 규제를 지켜야 하며 토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결사는 자유다. 그러나 정당의 목적이 질서에 위배될 때는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해산된다고 했으니… 이게 어떻게 되여 자유이며 민주주의라는 거요?

응시자. 자, 이런 심사원님, 그 언론 출판의 자유라든가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같은건 우리가 국민에게 약속하는 자유이구요. 그 《그러나》 하고 밝힌 대목은 우리가 가질 자유란 말입니다. 이렇게 자유를 골고루 나누어 가졌으니 이거야 말로 민주주의가 아니고 뭐요!

최근 《선거》를 앞두고 경찰단을 3천 명이나 증원한 《군사 정권》이 이번에는 서울시 경찰국 관내에 소위 이동 파출소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냈다고 한다.

이 이동 파출소는 무전 시설과 인민 탄압에 필요한 각종 살인 무기들을 실은 경찰차에 13 명의 정복, 사복 경관이 타고 서울 시내를 줄곧 감시하고 돌아 다니는 것이다.

경찰 사찰망과 중앙 정보부의 특무 조직을 거미줄 처럼 늘여 놓고 거기다 수도 방위 사령부를 위시로 헌병대 순찰차와 경찰 백차, 기마대, 기동대, 소방대까지 잔뜩 대기시켜 놓고 그래도 불안해서 이른바 이동식 경찰 파출소까지 내 오게끔 됐다면 미제의 식민지 통치의 운명도 가히 알만한 일이다.

선거표를 낚는다

박 정희 《대통령 선거》 한다

박 승희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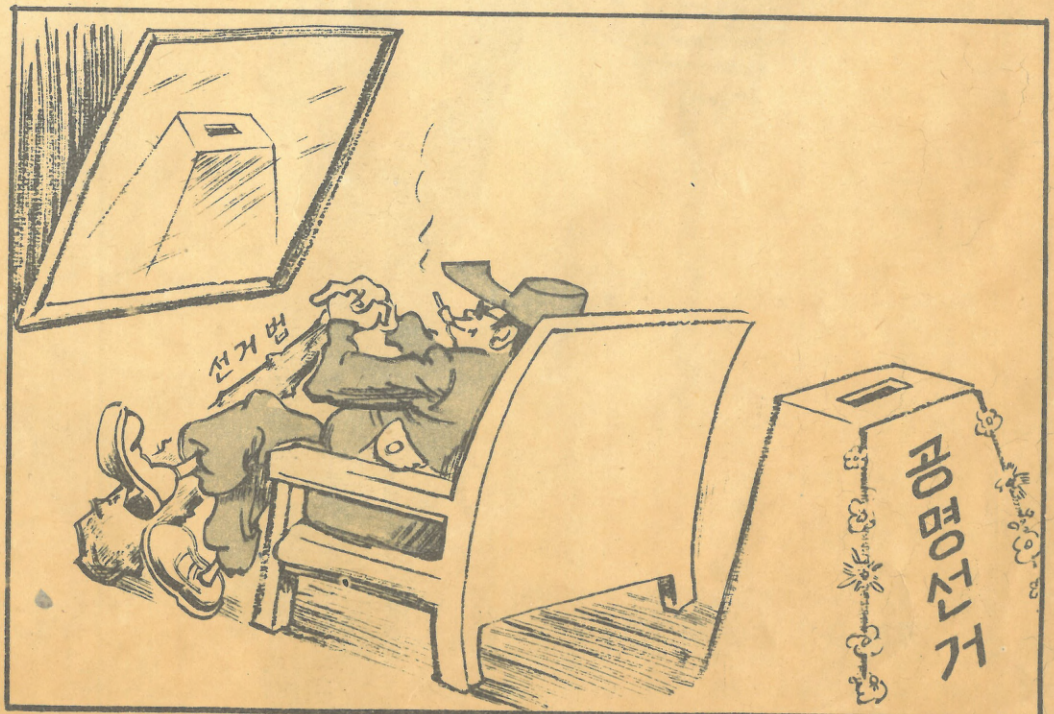
선거 준비

전 의남 그림

눈 가리고 아웅

백 인균 그림

속 앓는 박정희

홍 우 만

10월에 《대통령 선거》를 하고 11월에 《국회 의원 선거》를 하여 금년 내로 《민정 이양》극의 막을 내려야 하겠는데 헝크러진 삼거울처럼 어지럽기만한 정국에다가 형형색색의 《정객》들이 와글와글하는 서울에서는 도무지 머리가 돌지를 않아서 박 정희는 8월 초순에 리 승만이가 쓰던 진해 별장에도 가 보았으나 종시 활기를 얻지 못 하였다.

하기야 그도 리 승만의 솜씨를 본받아 《선거》에서 《대통령》 감투를 따먹을 수 있는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는데까지는 다 해놓은 셈이다.

《민주 공화당》이라는 《정당》도 만들었고 리 승만이 때의 《따'벌떼》, 《백골단》식으로 《애국단》이니 《자유 청년단》이니 하는 테로단도 꾸려 놓았으며 정복 경찰과 사복첩보망도 널려 놓았다. 《선거법》이요, 《정당법》이요 해서 반대파들이 머리를 들지 못 하게 《법》적 조치도 취해 놓았다. 《무더기 투표》, 《대리 투표》, 《사전 투표》 … 하는 것 쯤은 이미 여러 차례의 경험이 있으니 문제 없다. 정치 자금으로는 국고도 털어 쓰고 일본에서 도박 기계와 자동차 부속품을 밀수입 하기도 하고 《워커힐》을 지으면서 뜯어 먹기도 하여 수백억원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그의 졸개들인 《장관》들과 《장군》들이 벌써 오래전부터 박 정희의 《당선》을 선전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는 뒤틀리기만 하고 있다.

박 정희가 정신을 차리지 못 하고 있을 때 서울에서는 이전에 《내각수반》을 지낸 송 아무개가 7천 100여 자에 달하는 공개장을 신문에 발표하고 박 정희는 물러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이 무렵에 수집된 여론 조사 자료는 《군사 정권》의 인'기가 대폭락이여서 발표할 엄두도 못 낼 형편이였다. 그래서 《공보 실장》이란 자가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하라는 기자들 앞에서 《형편이 없습니다. 그대로 발표했다가는—》하고 제손으로 제목을 베는 시늉을 하면서 《쉬!》 하고 돌아 섰다.

사태가 이러한지라 박 정희는 시령우의 감투가 잡힐듯잡힐듯한데 발돋움한 발판이 와라락 무너져 내리는 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 더욱 초조해지기만하였다.

이럴 때 그가 한가닥 희망을 거는 것은 관상쟁이 박 령감의 《예언》이였다. 요 얼마전에도 박 령감은 《박 의장이야 우리 종씬데 무료로 봐 드립죠》하고는 《천태성을 타고 났으니…》하고 말했던 것이다.

오늘은 관훈동에서 관상쟁이 박 령감을 불러와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겠다고 마음 먹은 박 정희는 한결 마음이 놓이는 것만 같았다.

깨진 등에 불이 켜지라!

박 승희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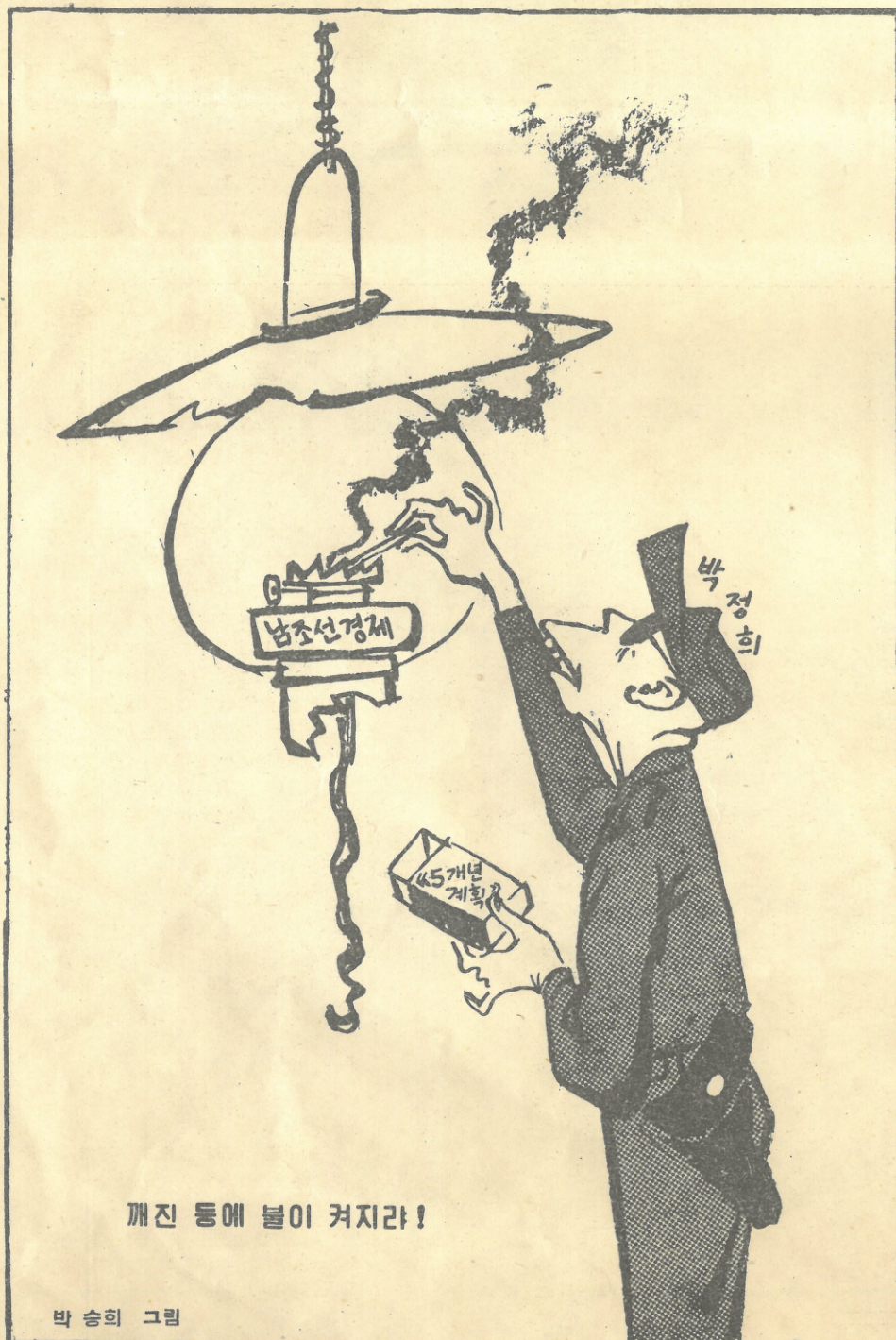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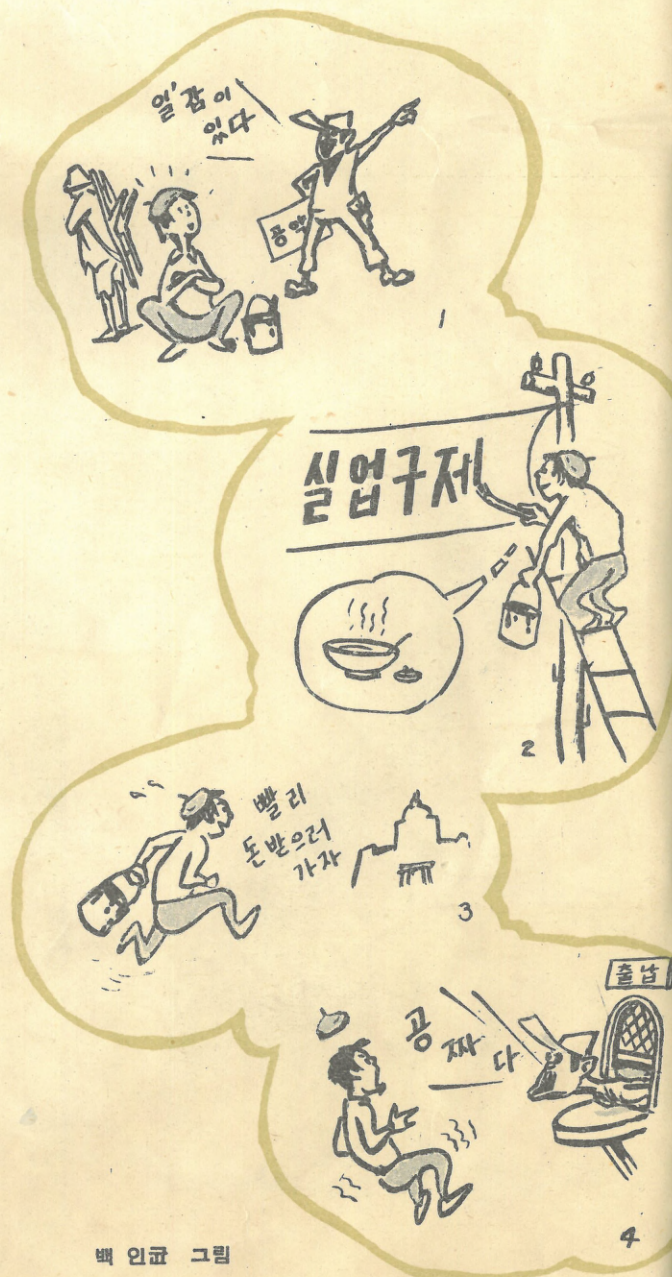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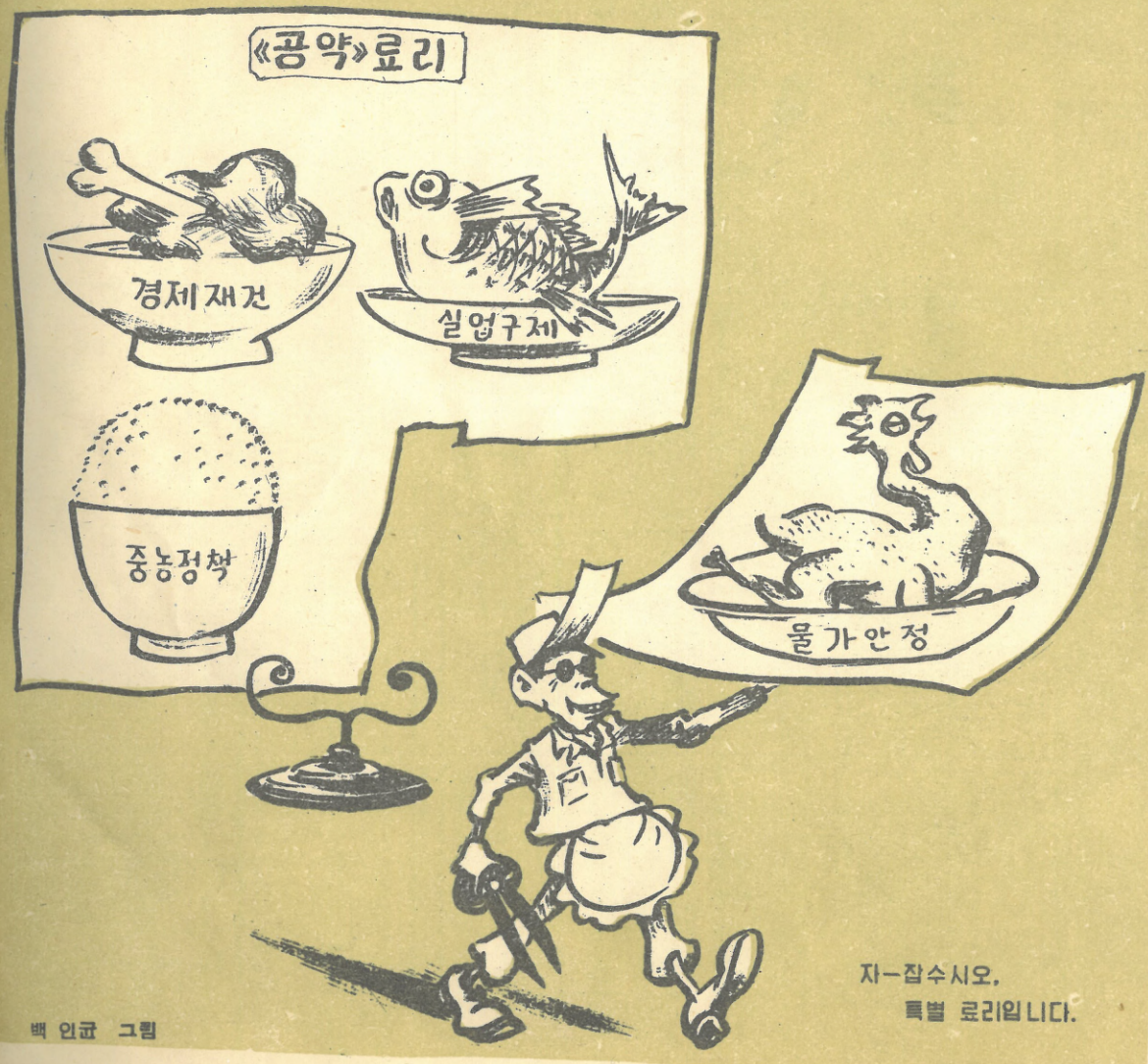
빈 약속

백 인균 그림

독자투고

사경에 처한 민생

평양시 장 영환 그림

박 정희의 《경제 자립》

그림의 떡

백 인규 그림

《선거 전문 학술원》

얼마 전에 소위 《애국단》 이란 레로 단체가 서울 종로 네거리를 활보하면서 난데 없는 데모 소동까지 벌리더니 이번에는 《청사회》라는 해괴 망칙한 단체가 또 하나 나타나서 민주 공화당의 선거전을 승리에로 이끌겠노라고 호언 장담을 하고 있다.

《애국단》 에다가 《청사회》 까지 나오게 됐은즉 왕년의 리 승만의 《따'벌떼》 며 《백골단》 이며 하는 레로단의 쌍벽이 그 대로 소생한 감이 없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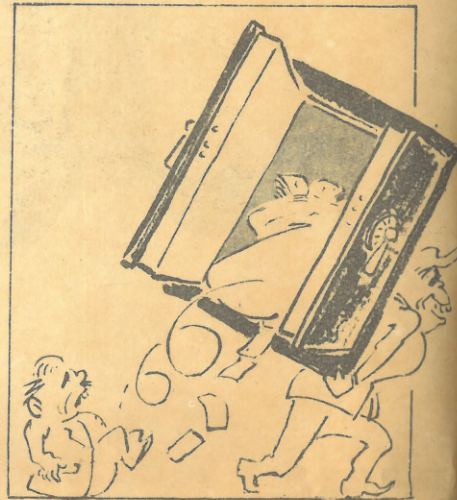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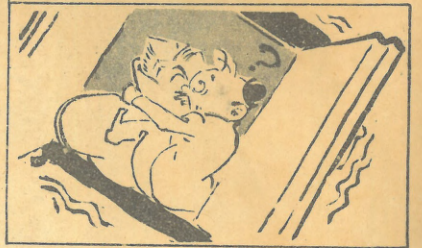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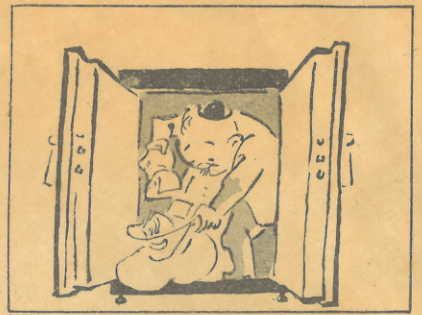
그런데 《청사회》 간부라는 청년이 기자 회견을 자청하고 나와서 하는 말이—《우리는 순수한 학술 단체이며 공화당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딴청을 피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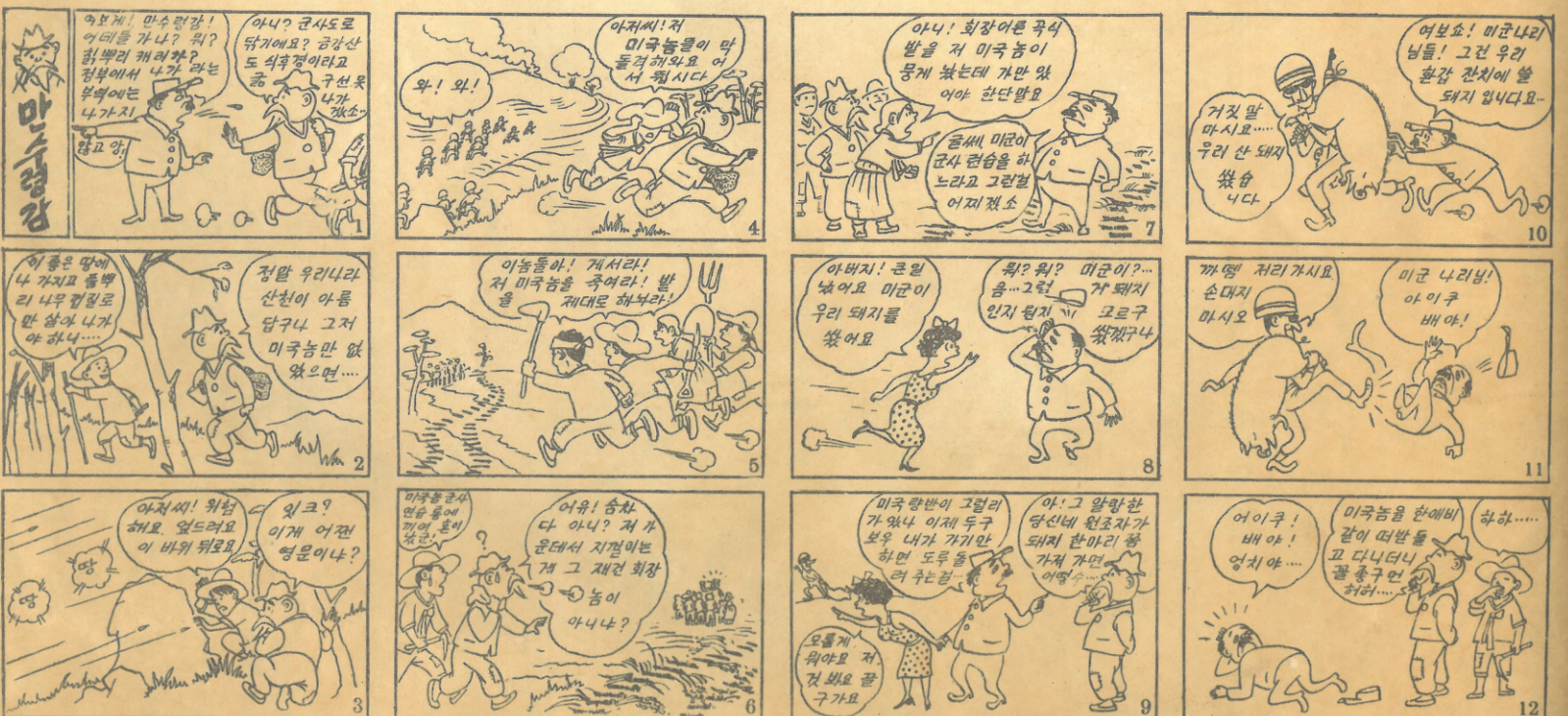
하긴 3인조, 9인조,몽둥이 선거에 협잡 선거, 유령 투표, 무더기 투표, 깜빡깜빡 정전 개표에 피아노식 개표 등등 오만가지 협잡 선거 놀음도 15년 이상이나 이골이 나고 보면 이제는 그것 하나만을 전공하는 선거 전문 학술원이 생길 수도 있겠고 박사 학위 론문도 나올만한 일이다.

범죄자의 증거물

—이 증거품 앞에서도 정전 협정 위반 행위를 변명할레냐?

송 시엽 그림

《구약》보다 더 한 《신약》

—이크! 이놈은 나보다 더 하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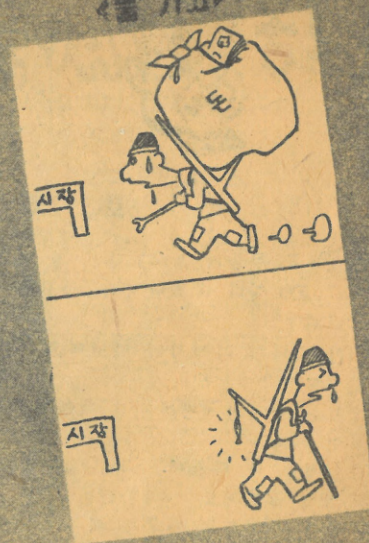
조 명식 그림

오 은렬 원작, 원 광수 그림

전 의남 그림

누구를 입원 시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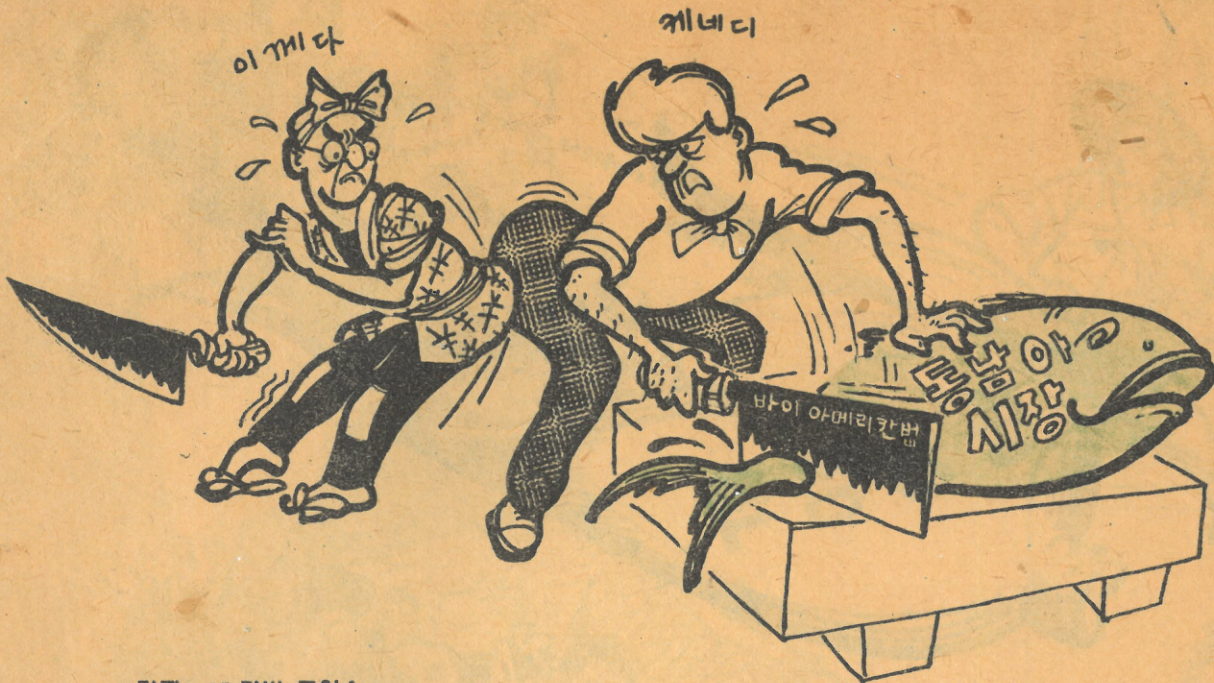
전라 남도 광주에 소위 《국립 뇌 병원》 이라는 것이 있는데 낡은 판자집에 《국립》 이란 간판만 달렸을 뿐 그 내막인즉 한심하기 짝이 없다.

글쎄 백여 명의 환자에 의사가 단 한명 뿐이고 그나마도 아무런 치료 대책도 취하지 않고 있는데 《전남 일보》 의 표현을 빈다면— 인간의 뇌 신경을 치료한다는 병원 꼴이 《돼지 우리보다 조금 낫다 할가》 비가 오는 날이면 지붕이 새고 휘줄근해서 도무지 음산하기 짝이 없으니 《성한 사람도 미칠 지경》이란 말이 왜 안 나오겠는가?

그런데 이런 병원을 차려 놓고 《국민 보건》 이 어쩌구 저쩌구 소위 《업적》 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우선 그런 정신 나간 사람부터 이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할 것이다.

—누기 자살했나요?
—어이구 기가막혀…글쎄 이 자식이 빚을 갚지 않고 죽었네그려. 아이구 분해라…

박 정희—허허…매월 [illegible] 100 만 원 수준이 되는군!

원 광수 김 동철 그림

자리 다툼

미제—왜 덤벼 들어!
일제—너 혼자 독차지하고 나는 꼬리나 먹으란 말이나…

최 영근 그림

로 철

케네디 : (툭툭 두들겨 보며) 음, 잘 여므렀군, 나 200 딸라 내겠습니다. 대갈통 팔겠습니까?
맥밀란 : 저… 나는 과학자가 아닌데요
케네디 : 무엇이?
맥밀란 : 저는 당신의 《맹국》인 대영제국의 수상인 데요.
케네디 : (침을 탁 뱉으며) 아하, 그 놈의 대갈통 몹시 고린내도 난다 했더니 첫, 그 따위 늙은 수박통엔 한푼도 치루지 못 하겠소.

이것은 영국 신문 《더 타임스》 지에 실린 유모어의 한 토막이다. 제목은 대갈통 싸움.

대갈통 싸움이란 무엇인가?

원래 미국은 교육 제도의 심한 락후성으로 말미암아 요구되는 과학자, 기술자의 절반 밖에 양성해 내지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케네디는 얼마전에 백악관에다 과학 기술 문제에 관한 특별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영국, 서부 독일, 불란서, 일본 등지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재 봉급의 5~6배를 준다는 것을 미끼로 해서 그 나라 과학자 기술자들을 다량 끌어 드려 오고 있는데 영국으로부터 빼낸 박사, 교수, 학자, 경험 있는 기수 수는 년 평균 660 명에 달하며 서구라파와 북구라파에서는 작년말 현재 총 4만 여 명, 일본에서는 작년 한해 동안에만 해도 748 명을 빼냈다고 한다.

미제의 이 《뻔뻔스러운 대갈통 횡령 정책》(맥밀란) 은 그렇지 않아도 핵 무기 독점을 둘러 싼 싸움, 관세 싸움, 닭고기 싸움 등으로 미국에 대해 극도의 불만을 품고 있는 그의 《맹국들》 속에서 커다란 분노를 야기시켰다. 특히 노발 대발한 것은 영국이다. 황실 과학원의 《과학자 출국정형 조사 보고》를 출판물에 발표한다, 《두뇌를 위한 투쟁 위원회》를 조직한다, 영국 국회에서 《다른 나라의 두뇌를 믿고 살고 있는 더러운 기생충》이라고 미국을 규탄하는 항의문을 채택한다 하고 야단법석하다가 나중에는 맥밀란까지 직접 나서서 특별 성명이라는 것을 발표하고 미국의 이 《대갈통 횡령 행위》는 케네디의 대갈통이 《썩은 오이보다 못 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행위》 (영국의 만화가들이 케네디의 머리를 흔히 오이에 비교하여 그리고 있는 데서 나온 말)라고 야유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러니 케네디는 케네디 대로 잠자고 있을 리 만무하다. 불야불야 기자 회견을 열어 놓고 맥밀란의 발언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명》 하였는데 이 때 어느 한 기자가

—각하 그럴 것 없이 아예 맥밀란의 대갈통까지 다 사 버린다면 썩은 오이라는 욕도 먹지 않고 만사가 순조로울 게 아닙니까—하고 질문했더니

—그 따위 고린내 나는 늙은 수박통에는 한푼도 치루지 못 하겠소.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상과 같은 유모어가 나온 것인데 하여튼 이 대갈통 싸움이 언제까지 계속될런지는 예측하기 어려우나 케네디의 《썩은 오이》와 맥밀란의 《고린내 나는 늙은 수박통》이 서로 맞쫗고 산산쪼각이 날 날은 멀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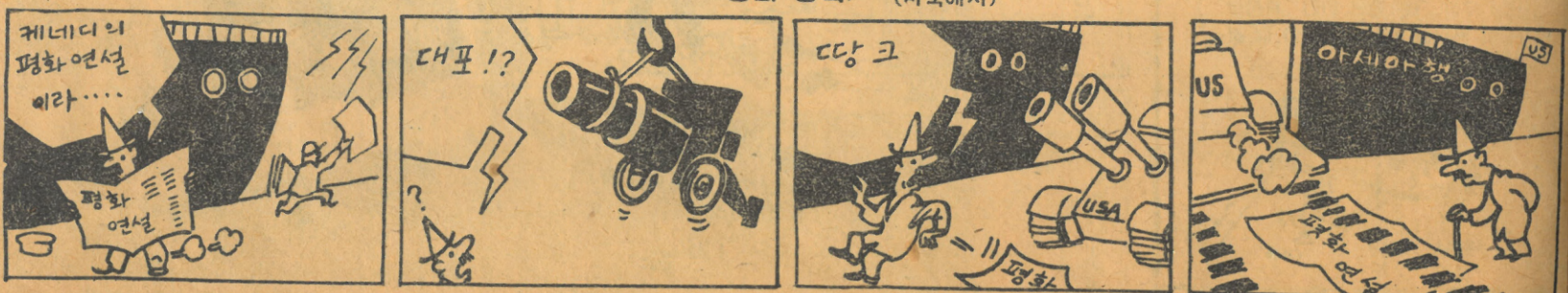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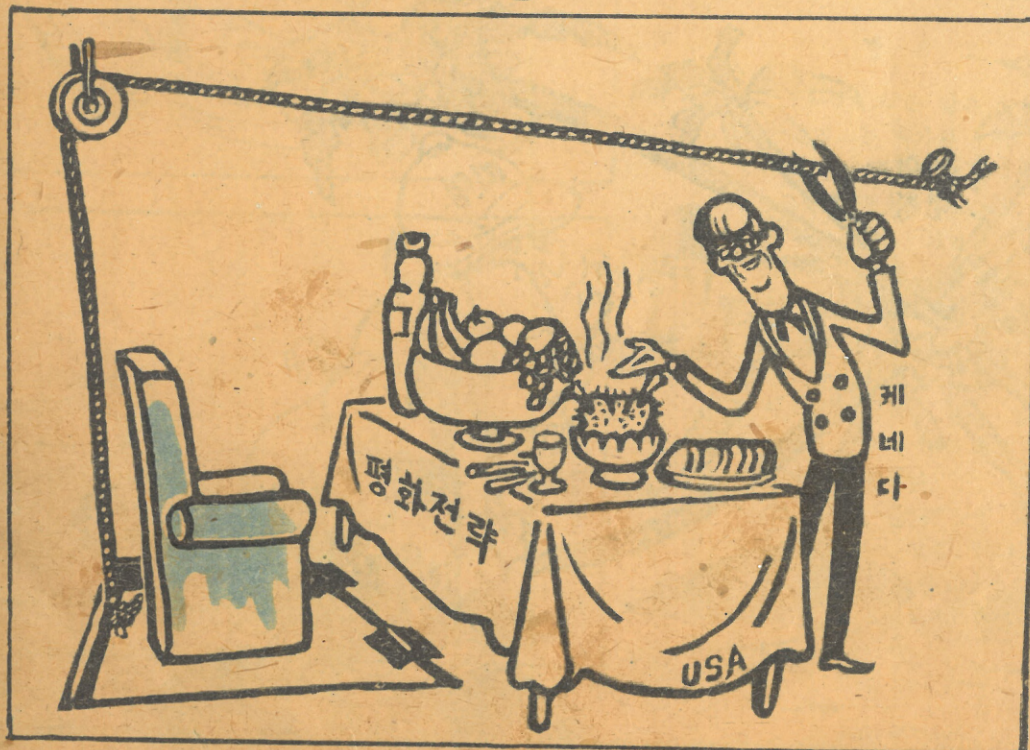
《평화 정책》 (미국에서)

최 영근 그림

《닭고기 전쟁》

드골—쪼아라 쫘 공동 시장엔 못들어 온다.

최 영근 그림

《함 정》

—자 어서 마음 놓고 드십시요.

오 현

미국의 어떤 탄광에서 일대 불상사가 일어 났다. 갱내의 가스가 폭발 되어 수많은 로동자들이 희생 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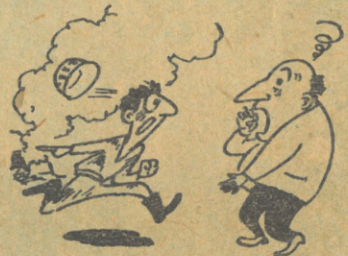
바로 이 사실을 탄광주에게 알리려고 사람이 달려 갔다.

<탄광주님 큰 일 났습니다. 가스가 폭발 되여 갱도가 무너지는 바람에 많은 로동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탄광주는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일하다가 죽기야 례상사지 뭘 그리 야단인가 ?>

<그런데 저…로동자들이 일하는 걸 감독하러 갱 속에 들어 갔던 광주님의 친동생도 죽었습니다>

<뭐 ? 내 동생도 죽었어 ?>

태연하던 광주는 서두르기 시작했다. 이 자에게도 형제간의 정은 있는 모양인지 !?…

<어서 가 봐야겠군>

그런데 탄 광주는 무너진 갱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 쪽으로 달려 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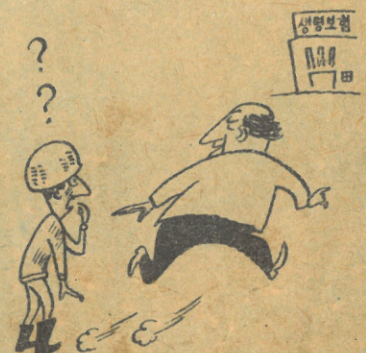
<광주님, 아니 ? 어디로 가시우? 무너진 갱은 이 쪽입니다>

<음, 그건 나도 아네>

<그런데 어째 그 쪽으로 가시우?>

<음, 난 보험 회사로 가네>

<그건 뭘 하려요?>

<내가 우리 동생 이름으로 생명 보험을 들었 는데 빨리 그걸 찾아 와야 하겠기에 그러네>

사이공의 밤은 깊어가는데…

최 경희

시일: 8월 21일 밤 (디엠 도당이 《초 계엄령》을 선포한 다음날)
장소: 사이공 군구 사령부
등장 인물: 군구 《사령관》 손 시 틴, 미군 《고문》 노스팅.

(막이 오르면 《사령관》 실. 밖에서는 시가지가 불타고 총소리가 요란한데 안에서는 겁에 질린 손과 노스팅,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노스팅: 이젠 할 수 없소. 당신이 직접 갔다 오시오.

손: (《미제와 디엠 도당을 타도하라!》라는 웨침 소리 높은 밖을 힐끔힐끔 바라 보면서) 저… 저는 아직 젊은데요…

노스팅: (발'길로 거더차며) 갓뎀! 빨리 가란 말야! 빨리 가서 병사들을 불러와! 그러지 않다간 (밖을 가리키면서) 저 《폭도들》 때문에 당신이나 나나 다 죽고 만단 말야, 알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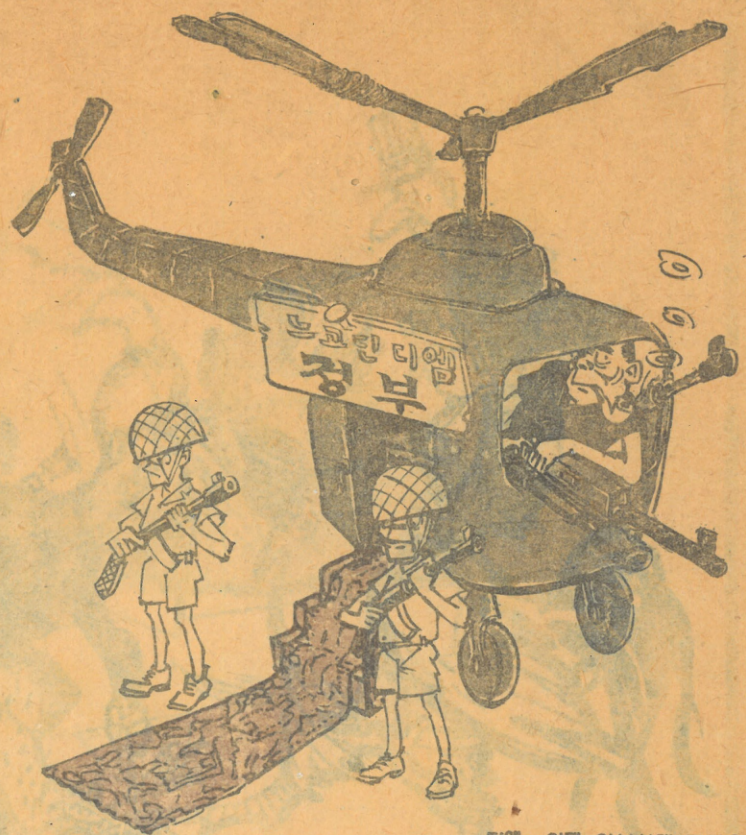
손: 시내에는 불교도와 대학생의 시위 군중으로 길이 꽉 메였는데 이 《준장》 복을 입고 어떻게 … 온 시가를 돌아다니란 말씀인지…

노스팅: 변장하고 갔다 오란 말야! (발'길로 걷어차는 바람에 문밖으로 굴러 나간다)

노스팅: 쳇! 이럴 줄 알았더라면 병사들을 시내 각 구역에 파견하지 말아야 했을 걸. 불러올려다가 빨리 우리집을 경비시켜야 하겠는데 어데 전화가 통해야 부르지. 불교를 믿는 폭동 병사가 몽땅 줄을 끊어 놓은 모양이야, 참 이거 야단 났는데…

(이 때 《찌르릉》 하고 전화 벨 소리 울린다.)

노스팅: (급히 달려 가서 전화를 받는다.) 나요. 노스팅 대좌요. 시 군구 사령부요. 하진 구역 《경찰서》라구? 오우, 매우 좋소. 당신네 전체 경찰 중대를 인차 내 집에… 아니… 거시기… 인차 사령부로 보내시오. 경비를 세워야겠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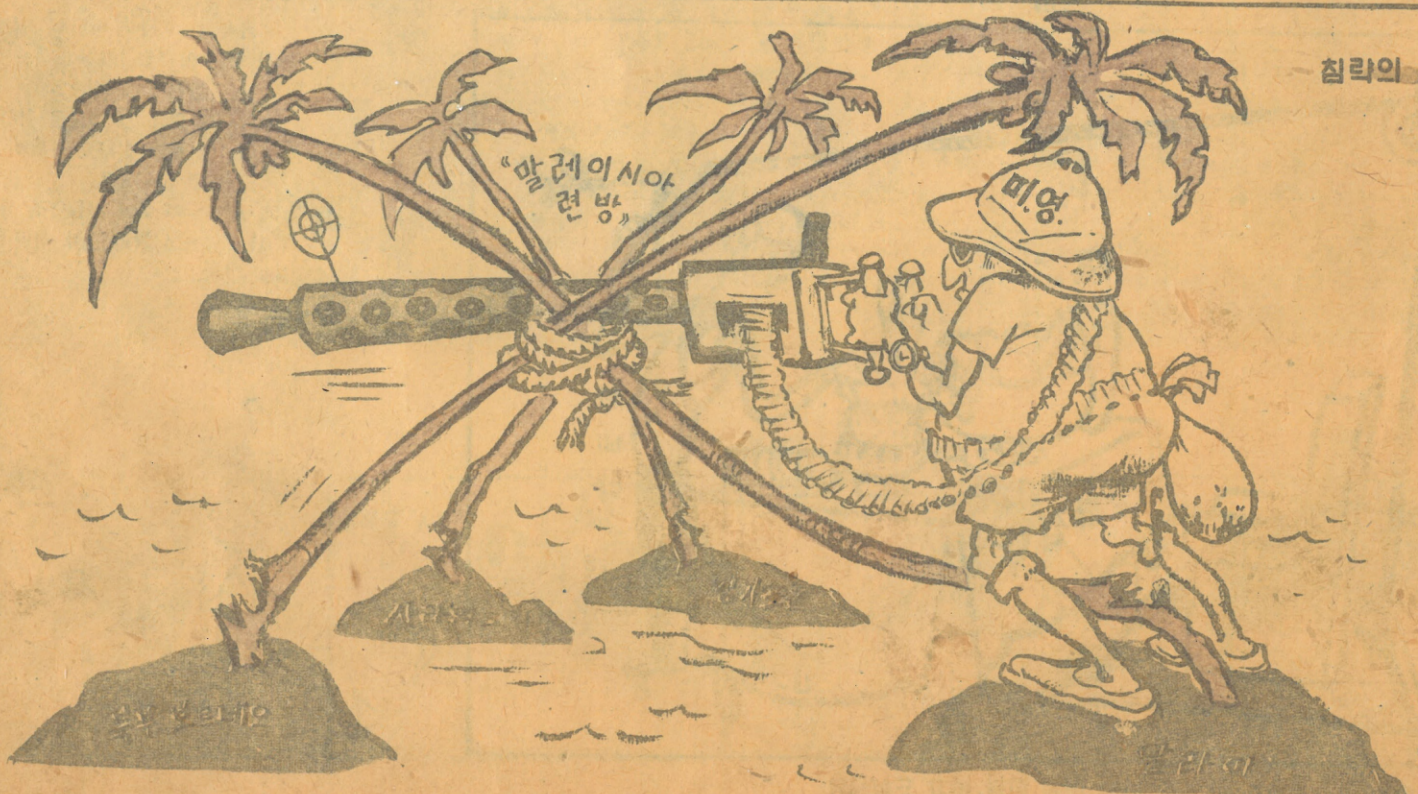
미국 대사관 경비에 두개 대대, 디엠 《대통령》 청사 경비에 한 개 대대를 배치하다나니 여기는 텅 비였단 말요. 알겠소? 무엇이? 《서장》이 없어서 모르겠다구? 쳇! 그 자식, 고문실에 들어가서 고문중인 모양이군. 거기 가서 찾아 보오. 거기에는 없다구? 중들만 가득 들어가 있단 말이지? 갓뎀! 그럼 《서장》실엘 가 보우, 자식이 이 분주통에 거기서 술을 쳐먹고 있는 모양이요. 무엇이 거기도 중들 뿐, 《서장》 나으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아니 이 자식아, 아무리 《죄수》가 많기로서니 《서장》 실에까지 처 넣을 필요는 뭐냐 말야! 앞마당에 가 보앗! 무엇이 거기도 중들 뿐이라? 야, 아니 그럼 그건 결국 하진 구역 《경찰서》가 폭동 중들에게 몽땅 점령되였단 말 아니냐, 앙!? 이제야 양키 대좌 나으리 옳게 맞혔다? 아, 아니, 당 당신은 대체 누구요? 《서장》 녀석 목아지는 벌써 요정 낸 지 오래고 이제 양키 대좌 나으리의 목아지 까지 따려고 한창 전투 준비중인 폭동 병사라고!? 으악—! (전기에 덴 것처럼 전화통을 내던지고 문쪽으로 도망치려하는데 때마침 중옷으로 변장을 하고 이 곳을 빠져 나가려다가 시위 군중에게 혼'살이 나고 도망쳐 오던 손과 마주쳐 서로 궁뎅이 방아를 찧고 나 자빠라 진다.)

노스팅: 으악! 빨, 빨갱이다!

손: 으악! 목숨만 살, 살려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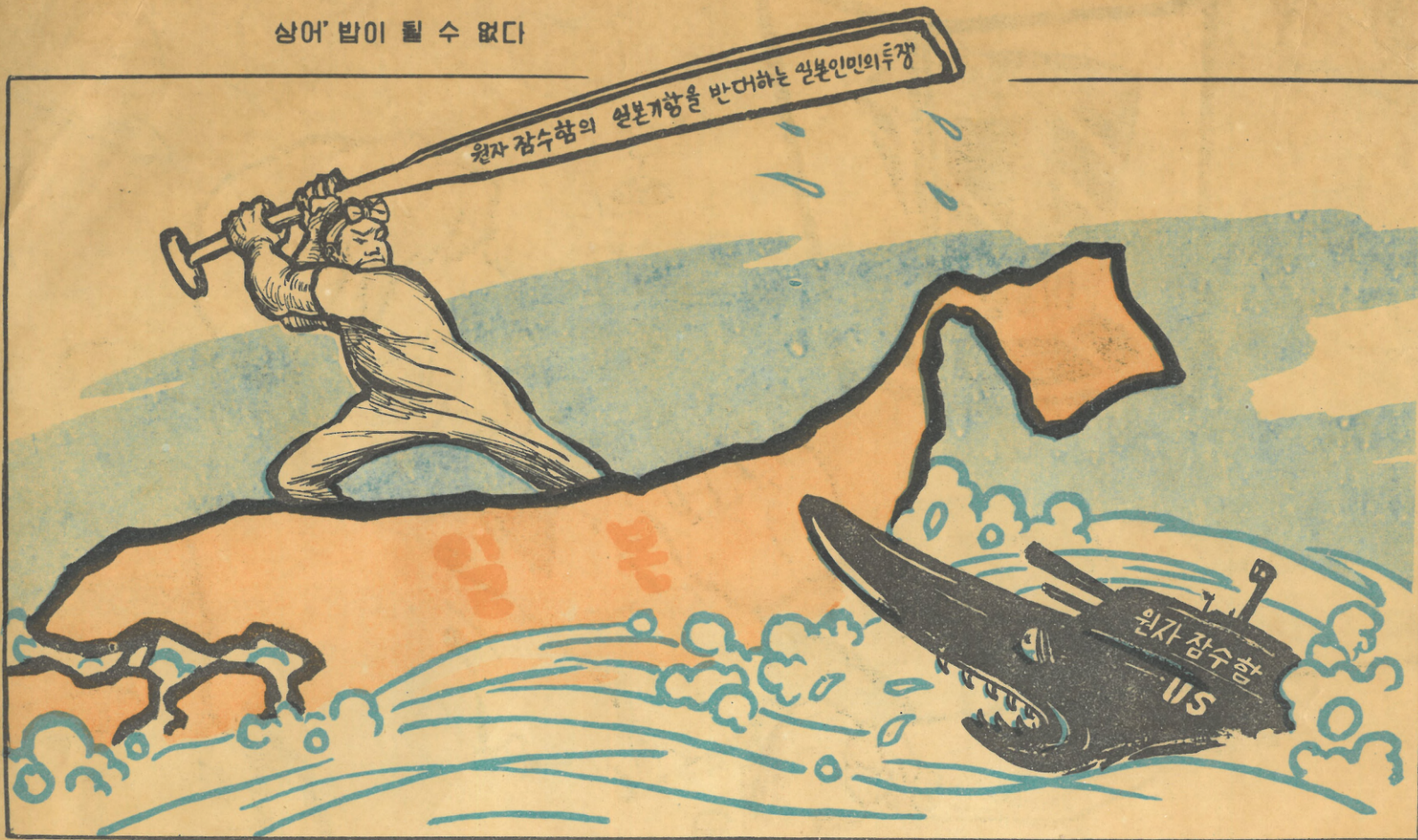
(코를 땅에 박고 있는데 《미제와 디엠 도당을 타도하라!》라는 군중들의 웨침 더욱 고조되면서 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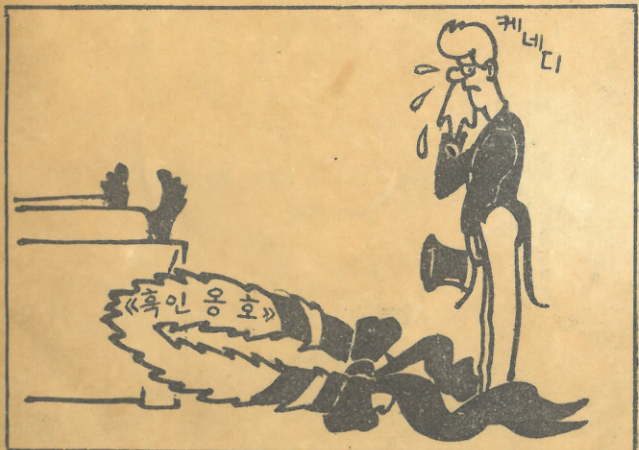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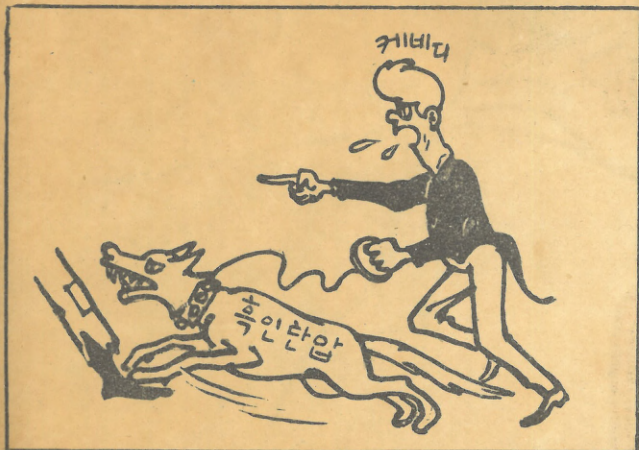
비상 대책

디엠 — 인젠 안심하게 됐군!

안 창수 그림

침략의 도구

백 인균 그림

상어' 밥이 될 수 없다

송 시엽 그림

일인 이역

최 영근 그림

뛰는 놈 우에 나는 놈

맹 준 호

뉴욕에서도 돈 많은 의사로서 이름난 스미스는 자기의 누이 동생인 메리의 생일 잔치에 초대되여 갔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메리의 사랑하는 개가 급자기 앓기 시작했다.

《에그, 오빠 이걸 어째나요? 이 귀염둥이가 급자기… 어서 좀…》

스미스는 슬그머니 화가 났다. 그것은 메리의 개를 치료해 준다 해도 치료비를 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공짜로 선심을 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미스는 남의 눈을 봐서라도 헐 수 없이 개를 치료해 주었다.

이 때 법률 상담소에서 일하는 스미스의 형 로버트도 초대되여 들어왔다.

스미스는 로버트를 만난 것이 퍽 반가왔다.

《형제간이라도 개의 치료비를 받아야겠지요.》

이렇게 스미스는 귀'속 말로 로버트에게 물었다.

《암, 받아야지, 합중국의 법률에는 오직 선심이란 하느님만이 베푼다고 되여 있지 않는가!》

스미스는 그 이틀날 고지서를 한통 받았다.

고지서는 메리의 집에서 개의 치료비에 관하여 그의 형 로버트와 상담한 상담 료금 청구서였다.

화 살 10 호 (171)
발행소 : 선 동 원 사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ㄱ—0899
발행 1963 년 9 월 30 일
(값 50 전)

감투 흥정

야당—저 대통령 감투를 주시오.
미제—안돼, 이건 박 정희거야.

백 인균 그림